

교비로 원장 빚 갚고...배우자 세금 내고 출근도 않는 아들 급여로 수천만원 지급

광주·전남 비리유치원 실태 공개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비리유치원' 명단과 비위 내용이 담긴 유치원 감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됐다.

25일 첫 공개된 2013~2017년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드러난 비위 내용을 보면, 일부 유치원 원장 또는 설립자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유치원을 교육 공간이 아닌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다.

시교육청은 이 기간 80개 사립유치원을 감사했는데, 단 3곳을 제외한 77곳에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비위 사실 적발 건수 194건 가운데 회계부정(위법부당) 사례가 179건으로 압도적이었다.

도교육청은 같은 기간 114개 유치원을 감사, 88곳에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역시 적발된 비위 229건 가운데 회계부정 사례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 교비로 원장 빚 갚고, 아들 월급 수천만원** 평평= 교비로 원장 가족들에게 아낌없이 급여를 준 유치원들이 한 둘이 아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가족에게 수백만원씩 월급을 주고 채용과정은 적절했으나 실제로는 유치원에 나오지 않고 거액의 월급을 타간 게 문제로 지적됐다. S유치원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월 급여와 수당으로 200만~250만원씩 줬다. 아들에게 지급된 급여만 3800만원에 달했다. 유치원 근무자 대다수는 감사에 나선 교육청 직원에게 "그런 분이 근무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유치원의 경우 2016년 여름 통학차량에 원생을 방지했다가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Q유치원은 원장 개인이 납부해야 할 대출비용(사학연금 대출) 1154만원을 교비로 냈고, 증빙서류도 없이 교비 1000만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원장에 지급했다. Q유치원은 또한 학부모에게 받은 교육비

광주 77곳·전남 88곳적발

증빙서류 없이 업무추진비 빼가고
공사자재 1880만원 샀다는데

알고보니 철물점은 폐업 상태

교비로 낸 보험료 수익자는 원장
"공금은 씹짓돈"...일탈행위 심각

1427만원을 회계 통장에 넣지 않고 설립자 개인통장에 보관했다가 미술품 3점을 850만원에 사들여 유치원 마당에 두기도 했다. 이 유치원 원장은 매월 50만원씩 21개월간 증빙도 없이 105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아갔다가 회수처분 받았다. I유치원은 계약 서류도 없이 설립자에게 10개월간 인건비 명목으로 2750만원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또다른 S유치원은 원장에게 초과 근무와 관계없이 매월 50만원씩 6개월에

걸쳐 300만원을 부당집행했고,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전임 원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다가 모두 회수처분 받았다.

E유치원은 철물점에서 공사자재 1880만원어치를 샀는데, 감사 결과 해당 업체는 구매에 앞서 폐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다른 S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건물 3층 개인 집 공과금을 유치원 교비로 냈고 원장 차량 보험료, 세금 등 유지비 554만원을 교비로 썼다가 회수처분 받았다.

◇**전남, 교비로 원장 차량·보험·주택 공과금 지출**=전남 유치원의 경우 광주와 비교해 부당집행된 교비 규모가 크게 적다는 점에서 감사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일부 유치원 원장 또는 설립자들은 교비와 개인 돈을 구별하지 않았다.

원장 개인차량 유지비, 과태료 등을 교비에서 지급했다가 적발된 유치원들이 다

수였다. 장성 A유치원은 2016년 3~7월까지 5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원장 차량 유지비로 지급, 교육청으로부터 회수처분을 받았다. 목포 B유치원의 경우 설립자와 배우자 차량 세금과 과태료 121만원을 교비로 낸 사실이 적발, 회수 처분받았다.

유치원 사업 관련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 납부는 교비로 하고 만기 환급 수익자는 원장 개인, 또는 설립자 명의로 설정한 유치원도 있었다. 광양 C유치원의 경우 교비 750만원, 광양 D유치원은 교비 3750만원을 보험료로 낸 사실이 드러나 전액 반환 처분을 받았다.

지급 근거가 없는 유치원연합회비를 교비로 지출하다 적발된 곳도 다수 있었다. 완도 E유치원, F유치원은 2015년 각각 51만원, 43만원을 교비에서 지출, 회수처분 받았다. 영암 G유치원도 2016년 교비로 연합회비 46만원을 낸 사실이 적발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5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오승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이 비리 유치원 파문과 관련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교육청 내년초 유치원 전담 감사팀 신설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 미참여 땐 우선 감사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내년초 유치원 전담 감사팀을 신설한다.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참여를 유도하고 미참여 유치원은 우선 감사 대상에 올린다.

광주시교육청은 25일 사립유치원 공공

성 강화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7개 감사팀을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전체 172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70~80개 사립유치원을 집중적으로 감사한다. 나머지 유치원 100여곳에 대한 감사는 2020년까지 마무리한다.

우선 감사 대상은 비리신고센터에 신고

된 곳(현재 10곳),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곳, 유아모집 중단이나 휴·폐원을 강행한 곳, 대형 유치원 등이다.

'처음학교'는 유치원 입학전형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포털 사이트다.

시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는 조직 내 정원을 조정해 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구성, 매년 정기 감사를 제도화하고 감사 결과는

유치원 실명을 포함해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아모집 보류, 휴·폐원하면 엄중히 조치하고 집단행동 정황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

'처음 학교로' 참여 여부에 따라 학습운영비 등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유치원별 컨설팅도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에서는 전체 유아의 82%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연간 유치원 지원 예산 732억 중 667억원이 사립에 배정돼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교육청은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조합 이사 선거 앞두고 대의원들에 금품 제공

광주 모 농협 이사 후보자 17명 모두 유죄

조합 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이사 후보자들에게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강산 판사)은 25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사 후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모두 4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이사 후보 13명에게는 각각 벌금 90만~150만원씩을 선고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사 망한 1명은 공소 기각했다.

김판사는 "대부분 부정한 방법을 사용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이사 선거 출마자 18명은 지난해 2월 이사 9명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겐 현금이나 상품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43명 중 41명에게 향응을 제공했으며 15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법경찰청은 후보자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대의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검토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선원 7명 감금·착취한 무허가 직업소개소 적발

25일 목포해양경찰은 성매매를 알선해 선원에게 빚을 지게 한 뒤 5년간 강제로 배에 태워 일을 시킨 A(52)씨를 직업안정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아들 B(29)씨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선원 7명을 목포시의 한 주택에 감금하고 강제로 승선시켜 일을 시킨 뒤 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폭행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찾아온 구직자를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데려가 성매매를 시키고 술값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빚을 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부자는 감금 혐의를 피하기 위해 올해 1월 해당 선원들을 포함한 12명과 함께 필리핀 원정 성매매를 다녀오며 경비 명목의 빚을 지게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검찰,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공소 기각에 항소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구속된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김모(48)씨가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풀려나자 검찰이 항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개발업자 김모(48)씨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일부 혐의가 공소 기각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횡령한 회삿돈 86억 4000만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일본주의'(-本主義)에 위배된다고 공소를 기

각한 것에 대해 58억원에 김씨가 횡령했다고 보고 항소했다. 다만 나머지 28억 4000만원은 항소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소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8일 열린 김씨의 1심 판결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그 밖의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금은방 절도 동영상 보고 모범범죄 나선 3인조 '딱 걸렸네'



상당할

○...인터넷에 올라온 금은방 절도사건 뉴스를 보고 "뭐야, 돌맹이로 진열장 유리가 쉽게 깨지잖아"라고 영감을 얻은 3인조 남성이 뉴스에 나온 그 금은방을 똑같은 방식으로 탈취고 나섰다가 금도 못 만져보고 구속될 위기.

○...25일 광주광안경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 사는 황모(30)씨 등 3명은 지난 13일 새벽 4시께 광주시 광안구 월곡동 A금은방에 침입해 망치와 돌맹이로

진열대 유리창을 연신 두들겼지만 유리창이 깨지지는 커녕 경보음만 울리자 그대로 출렁랑했다는 것.

○...이들은 범행 전 '유튜브'에서 4인조 때도둑이 A금은방에 침입, 진열장 유리를 손쉽게 부수고 49초만에 1억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영상을 본 뒤 범행에 나선지만, 지난해 절도 피해를 당한 업주가 곧바로 진열대 유리를 강화유리로 바꾸고 경비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결국 실패. /김한영 기자 young@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